

전남 아열대 작물 재배 급증...호빵 누른 아이스크림 매출

겨울 사라진 날씨

분야별 영향 및 전망

전남 해역 어업·양식 환경 급변
멸치·고등어 늘고 정어리 사라져
도시가스 사용량 꾸준히 줄어들어

예년과 달리 눈 없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업종 간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상 고온현상 속에 농도인 전남의 농작물 재배도 아열대 작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열대 작물 종류도 늘어나고 있고, 재배면적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전남지역 이상고온 현상은 지난 30년(1950~1980년)간 연간 0.36회 발생했던 데서 최근 30년(1980~2000년) 동안에는 연간 2.45회로 증가했다.

◇비꾸고 있는 농수산 환경=겨울갈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되풀이되다보니 전남 농작물 재배 판도가 바뀌는 모습이다.

전남이 전국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 314.3ha의 26%인 82.5ha를 차지할 정도다. 전남은 한반도 아열대화의 시작점이자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 특성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농촌진흥청이 주유 20개 아열대작물을 대상으로 파악한 재배가능면적 전남에서 454농가(82.5ha·26%)다.

이 중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는 371농가(63.2ha)로 전국 채소 농가의 32%에 이르고 아열대 과일을 기르는 농가도 전국의 16.5%(83농가·19.3ha)를 차지하고 있다.

범위를 넓히면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는 3346농가(1531ha)까지 늘어난다.

참다래(1210농가·589.5ha), 무화과(1316농가·632.8ha), 비파(174농가·88.6ha), 석류(237농가·82.6ha), 갈근(58농가·29.5ha), 레드향(80농가·24.6ha), 천혜향(30농가·5.7ha), 커피(24농가·3.9ha), 블랙커런트(16농가·3.5ha), 바나나(1농가·0.3ha) 등 다양한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수산업도 비슷하다.

기후변화에 따라 전남지역 연안 해역의 어업·양식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남해권에서는 1980년대 이후 멸치·고등어·살오징어·삼치 등의 어획량이 늘었고 갈치·강달이 어획량 등은 줄었다. 1980~1990년대 어획량이 많았던 쥐치류와 정어리는 자원이 거의 고갈됐다. 서해권에서는 멸치·꽃게 등의 어획량이 늘어난 반면, 갈치·갑오징어·뱅어류는 감소했다. 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이다. 부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4일 장관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첫 일성 “文정부 성공에 일조...최선 다해 노력”

임명장 받고 문 대통령과 환담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는 14일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가진 환담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고 싶다”며 “내각 국무위원과 많은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으면 틀림없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의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잘 지켜봤다”며 “참 많은 도움을 제가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분 실장님과 청와대 여러 분도 잘 도와주시고 자주 소통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 꼭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정 총리 임명을 재가했으며, 이에 따라 정 총리는 이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정 총리의 취임으로 2년 7개월간의 최장수 총리 기록을 쓴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기는 이날 0시를 기해 끝났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환송행사를 갖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

든 국민과 국가와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하겠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2년 7개월 13일간 재임했다.

이 전 총리는 “2년 8개월에 가까운 국무총리 근무를 마치고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간다”며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질책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흠이 많은 저를 성심으로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신념이 굳고 배려가 많은 대통령을 모시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공직자 여러분과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더 발전할 것이라 저는 확신한다”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환송 행사에서는 이 전 총리가 태풍 ‘미탁’ 발생 당시 여러 차례 방문했던 강원도 삼척 신남마을 김동혁 이장이 직접 나와 꽃다발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해 4·15 총선에서 역할 할 이 총리는 환송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9시에 당에 인사를 하러 간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행보를 묻자 “저도 궁금하다”며 “제가 (어떤 역할을) 기대하거나 탐낼 처지는 아니다. 어떤 책임이 저에게 맡겨질지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가균형정책 강화 필요...23개 사업 25조 배정”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하고 국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원 넘게 배정하고 올해 지방소비를 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상당히 획기적 변화”라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이 있다고 본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답했다.

또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도권

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돈, 기업 등 경제력이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가 줄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 젊은이들이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도권

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돈, 기업 등 경제력이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가 줄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 젊은이들이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도권

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돈, 기업 등 경제력이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가 줄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 젊은이들이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가봤나? 대구경북... 가보자! 대구경북

버스타고 만원 路... 대구경북 가즈아!



아! 오! 소! So!
대구경북!
Welcome to Daegu-Gyeongbuk

가장 한국적이다! 세계문화유산 최다보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 문화의 원형이자 민족문화의 본산지입니다. 찬란한 신라천년의 문화, 신비의 가야문화, 선비정신의 유교문화를 만나보세요.

UNESCO 세계문화유산 : 불국사, 석굴암, 경주역사유적, 하회마을, 양동마을, 북서사, 봉정사, 서원(소수·도산·병산·옥산·도동) 대구근대골목(청라언덕, 계산성당, 이상화·서상돈 고택), 국제보상운동기념관

아름답다! 맑은 공기, 수려한 자연경관(江, 山, 海)

낙동강 700리, 백두대간 800리, 동해안 1,300리에 펼쳐진 절대 청정비경,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등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힐링명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회룡포, 삼강주막, 경천대, 강정고령보·디아크, 서문진나루터, 송해공원, 소백산 자락길, 주왕산, 팔공산 올레길, 비슬산 참꽃, 동해안 블루로드, 해파랑길, 호미곶, 금강소나무숲길

맛있다! 사계절 다양한 먹거리

깔끔하고 정갈한 맛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대구경북의 먹거리와 사계절의 풍요로움을 가득 담은 신선한 농수산물! 여러분의 입맛을 유혹합니다.

안동간고등어, 포항물회, 대게, 과메기, 대구약청, 동인동 짬뽕비, 납직만두, 따로국밥, 한우, 사과

흥이런 게 폭발한다! 풍성한 축제와 액티비티의 성지

전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 속에서 배우며 즐기는 체험, 대구경북에는 뭐든지 다 있습니다. 대구경북으로 놀러 오십시오!

대구차맥페스티벌,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포항 불빛축제, 봉화산타미음, 짬뽕이(부항명, 보현산뎀), 경주월드, 대구 이월드, 문경 활공랜드·레일바이크, 청도소싸움축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만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출발일정 및 코스 1.18 **안동** ▶ 병산서원, 하회마을 1.19 **고령** ▶ 딸기체험, 왕릉전시관 2.01 **대구** ▶ 근대골목, 서문시장 2.02 **영덕** ▶ 강구항, 죽도산전망대 2.08 **문경** 2.09 **포항** 2.15 **김천** 2.16 **칠곡** 2.22 **구미** 2.23 **영주** 2.29 **울진**

참가신청 및 문의 : 케이투어 스토리 02, 2038, 0840 ※ 중식비, 유료관광지 입장료는 개인부담 **출발시간 및 장소** : 오전 7시 / 서울(강남역 5번 출구), 수원(수원역 4번 출구), 부산(서면역 12번 출구) ※ 당일사정으로 인해 출발시간,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문자메시지를 통해 최종 안내함